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음 10월 13일) 제19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기업의 내일 · 청년의 내일

<FUTURE>

<MY JOB>

▶ 도, 시군 청년일자리 지원 추진계획 발표

내년부터 전북형 취업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에게 2년간 근속 시 장려금 300만원 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에 목돈마련 · 기업은 고용유지 기회 제공

전북도는 도내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8년 대표적인 도·시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의 내일(Future)', 청년의 내일(My Job)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일자리 상상 플랜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형 청년취업지원'과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군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 시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기업지원금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한 기업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지역의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되, 점차 청년과 기업 모두에

혜택이 되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 지원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청년참여 연령범위 확대(만25~39세→만18~39세), 기업지원금 조정(월 50~80만원, 최대 960만원→월 50~65만원, 최대 780만원), 공제참여 기업 우선 사업 배정 등이다.

한편,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근로자에게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한다.
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900만원과 기업 400만원(채용유지지원금)을 합쳐 2년 후에 1,600만원+이자를 받게 된다.

결국 청년은 본인부담금 이외에 1,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연 650만원의 연봉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2년간 총 700만원(기업의 청

년공제 적립금 400만원 포함)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없이 우수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정부(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11월 현재 200명의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국비지원금 300만원과 도비지원금 150만원을 합쳐 총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4개 시군까지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도 전북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해, 청년의 고용활성화 및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두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전북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성 기자



LED(발광다이오드)매입등기구 등 조명기구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엘텍 인터내셔널 한국공장 준공식이 29일 전주시 팔복동 엘텍 인터내셔널 전주공장에서 김명희 전주시회의의장과 엘텍 인터내셔널 박용인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중국서 U턴한 유망종기, 전주에 '등지'

조명기구 생산업체 엘텍 인터내셔널, 팔복동서 공장 준공식
작년 60여억원 투자 70여명 일자리 창출... 신제품 개발 등 나서

유망 중소기업이 중국 광둥성에서 전주로 등지를 옮겼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망기업이 전주에서 생산 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LED(발광다이오드)매입등기구 등 조명기구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엘텍 인터내셔널(회장 박용인)은 이날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엘텍인터내셔널은 팔복동 일반산업용지(덕진구 덕촌길 62, 팔복동 3가 148-1)에 총 60여억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10,585㎡, 건축면적 7,752㎡ 규모의 공장을 건립했으며, 7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중국 광둥성 톈시시에 공장을 설립한 후, 현재 약 30여곳의 바이어와 20년 이상 거래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 사용되는 매입등기구(Recessed down light)를 주 품목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이 북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UL(미국 보험협회가 설립한 안전인증 시험기관) 인증을 보유한 유망기업이다.

이 업체는 전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과 수출, R&D를 꾸준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기 가동 1년 이내에 효율적인 제조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LED를 광원으로 한 신제품들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백열전구(Incandescent)의 대체로 권장하고 있는 형광등(Fluorescent)과 할로겐(Halogen) 등을 뛰어넘는 대체품으로, 이 업체는 바이어들의 수요에 맞춘 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향후 2~3년 내에는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인 ㈜엘텍 인터내셔널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전주에 신공장을 건립하기까지 부지선정과 토지매입, 공장건축 등 트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준 전주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명실 공히 조명기구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엘텍 인터내셔널은 중국을 떠나 전주에 새공장을 내린 유망 중소기업이다. 전주시는 이 업체가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을 제공하고 세심한 정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설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있다. 작지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일형 중소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일이라면 불법만 아니면 뭐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근 기자

2018 평창올림픽 성화 임실 전역을 수놓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가 29일 임실을 찾았다.

이날 임실지역 성화는 7개 코스와 1개 스카이다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9시 17분에 오수의견공원을 출발해 오후 3시 30분에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안착했다.

첫 주자는 호남좌도농악의 맥을 잇고 있는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장인 양진성씨가 오수의견들과 함께 달렸다.

오수개와 함께 뛰는 성화봉송은 오수개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의견문화제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오수면은 평창올림픽조직위에 '오수개 및 썰매개 성화봉송 기획안'을 제출, 승인받았다.

특히, 오수개 6마리와 썰매 개 대표인 흥천철씨의 허스키 10마리가 이끄는 썰매가 성화를 봉송, 주변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전국체전 양궁 금메달리스트



오수의견공원 출발
치즈테마파크에 안착
오수견 썰매 이목 끌며

트 방천주양을 비롯, 임실군 농업경영인회장 라시열씨 등 총 9명의 주자가 성화를 들고 뛰었다.

이날 주자로 성화를 전달한 전국체전 양궁 금메달리스트 방천주양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 봉송에 오수면을 대표해 주자로 뛰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오수개의 명성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개의 스카이다 코스는 임실치즈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조성된 임실 성가리의 임실치즈역사문화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봉씨가 달렸다.

마지막 주자는 몽골에서 시집와 행복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두겨수렌씨가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올림픽대회 성공 염원의 불을 환하게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에 참여한 심민 군수는 "임실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기회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항균성 우수 침구 매트 개발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김인관)은 이너웨어 및 유아동복 원단 전문 생산기업인 무한섬유(대표 양성진)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청 산하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 사업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D Spacer 조직 표면에 환편조직을 접합한 흡습/항균성이 우수한 환편 침구 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3D Spacer 조직 표면에 얇은 직물 원단을 접합해 제조한 매트는 원단의 밀도가 높아 통풍성 낮고 두께가 얇아 흡습성이 낮은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 제품개발을 통해 텐셀, 대나무섬유 등의 기능성 원사와 면사를 복합하여 편직제조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통풍성과 흡습 성능을 높여 쾌적한 숙면을 할 수 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는 기능성 원사의 복합사기공, 편직 조직 개발을 중점적으로 맡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무한섬유는 최적의 편직 공정 개발을 통해 제품의 품질 및 다양한 응용제품을 개발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관계자는 "흡습·항균성이 우수하고 차별화된 환편 침구매트를 개발함에 따라 유아용 및 성인용 침구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깊어 가는 가을! 더욱더 생각나는 우리 먹거리! 가을에도 역시 단풍미인쇼핑몰입니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080-535-4345(무료), 063-532-4345